

‘반도체 ETF’ 수익률 고공행진에 자금운용사, 투자자 유치 총력전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최근 이어졌던 미국 증시에서의 반도체주 상승 랠리로 인해 반도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그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의 수익률 높이기와 자금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관련 ETF 64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23.79%에 달한다. 최근 한 달 동안 13.97%가 올랐다. 지난달 ETF 전체 수익률 상위 종목에도 반도체 ETF가 포진해 있다. 1위부터 4위까지를 ▲신한자산운용의 ‘SOL 반도체후공정’(29.13%) ▲삼성자산운용의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28.44%)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AI반도체포커스’(24.55%)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24.02%)이 차지했다.

국내 증시에서 ETF 시장의 몸집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활약도 돋보이고 있다. 단순한 테마ETF가 아닌 전문성과 특색을 갖춘 각사만의 ETF를 출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450개에 불과했던 ETF 개수는 2024년 3월 말 기준 846개로 뛰었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ETF 시장의 성장과 함께 운용업계의 경쟁도 심화되면서 비슷한 테마의 ETF들이 연달아 공개되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대형사나 수

(3월 ETF 수익률 상위 종목)

종목	수익률
1 신한자산운용 SOL 반도체후공정	29.13%
2 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28.44%
3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AI반도체포커스	24.55%
4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24.02%

/자료=한국거래소

반도체 ETF 64개 평균수익 24%
지난달 전체 ETF 수익률 1~4위

미래에셋 ‘TIGER ETF’ 순자산총액
연초 814억→이달 2078억 불어

신한자산 SOL 반도체후공정 ETF
한달만에 100억, 이후 수익률 1위

수요가 낮은 곳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공정 관련주를 세분화해 투자하는 상품들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선발 주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지난해 11월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ETF를 출시했다. 해당 ETF의 순자산총액은 연초 814억원에서 이달 2일 2078억까지 불어났다.

지난달 수익률 1위를 기록한 SOL 반도체후공정 ETF 역시 공정 관련주에 투자한다. 특히 신한자산운용은 SOL 반도체 ‘전공정’과 SOL 반도체 ‘후공정’ ETF를 나눠 동시에 출시했다. 해당 ETF는 상장한 지 한달 만에 순자산총액 100억원을 돌파했으며, 두 달도

되지 않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NH아문디자산운용이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주’ ETF를 출시했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SOL 반도체후공정 ETF의 성과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등 AI관련반도체 후공정 기업에 집중된 압축 포트폴리오가 힘을 발휘한 것”이라며 “특히 3개월 수익률 130%를 넘기고 있는 한미반도체의 편입 비중이 국내 반도체 관련 ETF중 가장 높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반도체 ETF의 성과를 견인한 것은 한미반도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달 수익률 상위 1위부터 4위를 기록한 반도체 ETF들이 모두 한미반도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에 필수적인 TC본더(열압착을 통해 칩과 웨이퍼를 붙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의 SK하이닉스 공급사이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공급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122.52% 급등했다.

/신화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기업 밸류업을 위한 대표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정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참석인사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KRX,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의견 수렴

상장사 대표기업 간담회
“의견수렴 거쳐 가이드라인에 반영”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기업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거래소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기업들은 기관투자가 참여와 과감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거래소는 4일 정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재로 ‘상장사 대표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한국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현대차 등 코스피 상장기업 11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향후 주요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기업의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 이사장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해외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표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기업들은 기관투자자 참여, 인센티브 확대, 이사회 역할, 자율공시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 밸류업에 대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이 단기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기조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의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및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 밸류업과 투자사이에 선순환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화은 기자

자금줄 막힌 바이오기업 ‘상장폐지 기로’

제넨바이오·카나리아바이오 등 6곳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거래정지

“결국은 성과 못 내 발생하는 문제
사실상 개선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

재무 건전성 약화로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바이오부문 투자가 대거 끊기면서 자금줄이 막힌 상황인 데다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적악화, 자본 잠식 등에 빠져 상장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다.

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넨바이오, 셀리버리, 뉴지랩파마, 카나리아바이오, 세종메디칼, 제일바이오 등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재무제표에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 거절을 표명할 수 있다. 이 중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다. 적정의견을 제외한 세 가지는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해당 기업은 이의신청을 통해 1년간 개선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거래는 정지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종이식 전문 기업 제넨바이오는 지난달 22일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제넨바이오는 올해로 6년째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불확실성에 따른 ‘한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최대주주와 기존 경영진이 갈등을 보이고 있고 핵심 연구진들이 이탈하면서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신약 전문 기업 카나리아바이오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거래가 정지됐다. 카나리아바이오의 자본잠식률은 지난해 말 기준 386.8%다. 개발 중인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맵’ 임상 3상 중단 권고에 따라 무형자산 손상차손 반영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2018년 성장성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셀리버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거래가 중단됐으나,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작년 회계에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이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매출을 전혀 올리지 못했으며 자본잠식률은 233.1%로 완전 자본잠식 상

태에 있다.

뉴지랩파마 역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 자본잠식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세종메디칼, 제일바이오 등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투자로 한임상까지밖에 갈 수가 있는데 최근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끊기면서 후속 진행을 못하고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 매출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바이오 기업들은 거래 재개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이나 고금리 지속, 바이오 투자 한파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세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결국은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기업의 영업 성과 내지는 기업의 매출이 성과 낼 수 없는 단계로 가버렸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면 개선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DC적립금 10조 돌파

중장기 연평균 수익률 5년 5.2%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DC 적립금이 10조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1일 기준 퇴직연금 DC 적립금 10조 283억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DC 중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지난해 말 기준 5년 5.2%, 7년 3.87%, 10년 3.22%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0개 사업자 중 5, 7, 10년 중장기 수익률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또 DC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자 평균 18%를 웃도는 53%를 기록했다. 적립금은 4조8000억원으로, 전체 사업자 실적배당형 상품 18조2000억원의 약 26%에 해당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ACE 美빅테크TOP7 Plus ETF’ 수익률 1위

한투운용, 연초 이후 수익률 21%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상장지수펀드(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빅테크 ETF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3일 기준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1.30%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상장된 빅테크 ETF 9개(레버리지 제외)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6개월 수익률 또한 33.91%로 우수하다. 레버리지 ETF를 포함하면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의 레버리지 버전인 ACE 미국빅

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 ETF가 1위(연초 이후 43.82%, 6개월 71.17%)이다.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는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편입하는 상품이다. 특히 10개 종목 중 매그니피센트7(M7)으로 불리는 빅테크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현재 M7 종목의 편입비중은 ▲엔비디아(22.40%) ▲아마존닷컴(15.95%) ▲마이크로소프트(15.04%) ▲구글(알파벳 A, 14.80%) ▲애플(12.36%) ▲메타(11.97%) 순이다. /신화은 기자